

잘 닦인 근대의 거울로 내다본

21세기 지식인의 초상



여기저기서 '책, 책, 책, 책을 읽읍시다' 라고 말한다. 꼭 읽어야 할 양서목록이 권위 있는 기관이나 책 전문가들의 이름을 달고 끊임없이 쏟아져 나온다. 하지만 그 '좋은 걸' 읽어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일하라, 애 키우라 해야 할 일이 태산이고, TV나 컴퓨터만 켜면 '눈이 즐거운' 세상에 선뜻 '고통스러운 책읽기' 에 몸을 내던질 '용사' 가 그리 흔치 않다. 《근대의 책읽기》의 저자 천정환(35) 씨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서문에서 고백했지만 저 역시 독서와는 거리가 멍니다. 오히려 리모콘 없이는 하루도 견디기 힘든 플리퍼(flipper : 리모컨의 대중화에 따라 분당 두세 개의 채널을 동시에 돌리면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골라 보는 집단)에 훨씬 가깝습니다."

국문학 박사 그것도 '책에 대한 책' 을 쓴 책 전문가의 고백이라고 믿기 어려운 말이다. 하지만 뜻밖에도 책에 대한 강박관념에 시달려온 독자들은 그의 고백을 경량화하기보다 천씨의 책에서 시선을 떼지 않는다. '박사도 그렇다고? 그럼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네' 하는 안도감마저 가누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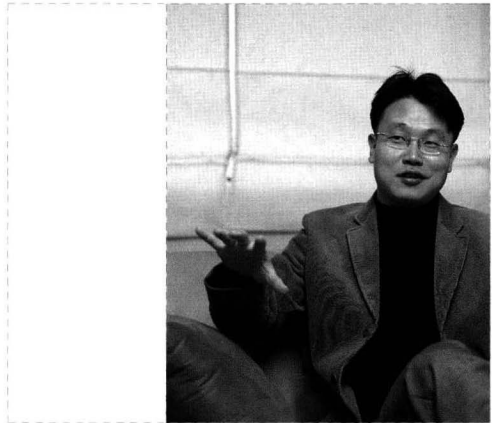
천씨가 자신의 박사논문을 새롭게 쓰고 구성한 《근대의 책읽기》는 '독자의 탄생과 한국 근대문학' 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우리가 여태 보아왔던 '강호 고수들' 의 책읽기 책하고는 다르다. 이 책은 "진짜 말 그대로 낮 놓고 기억자도 모르던 조상님네들이나, 학교 졸업한 이후로는 책 담장을 쌓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 그리고 신상 명세서 '취미' 란에 '독서' 라고 써넣고는 약간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의 책읽기에 관한 책"이다. 책을 소재로 하지만 텍스트의 미로에서 고민하지 않고 책 주변을 둘러싼 흥미로운 사회 현상들을 잘 닦인 거울처럼 보여준다.

"1920년대에서 1930년대는 앞의 지형이 서구적으로 확대재편된 시기였습니다. 대중적인 독자라는 개념이 자리잡은 것도 이때입니다. 당시의 출판물과 독서경향 분석을 통해 과연 어떻게 지식이 재편되었느냐 살펴보는 것은 현재 우리 지식인의 근원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자.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었던 과거에는 책을 많이 읽고 독서의 질도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역시 일종의 강박관념에서 비롯된 생각이다. 그때 역시 출판에서는 수험서가 가장 큰 시장이었다. 그 배경은 두말 할 것 없이 학벌사회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다.

전체적인 책임기 시장에도 실용서, 문학, 비소설 등 현재와 비슷한 형태로 판이 짜여졌다. 특히 당시에도 '전통적 독자'와 '근대적 대중독자', '엘리트적 독자층' 등으로 독자의 수준을 구분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 구분은 자발적 분화가 아니라 신문잡지 등의 매체와 제도교육, 문단 등 외부의 권력에 의해 이루어졌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는 게 저자의 분석이다.

천씨는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면 현재의 당혹스런(?)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19세기 전에는 시집을 가면 어머니가 그 전날 딸을 불러 ‘음양의 조화’에 대해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1920년 대에는 일본에서 나온 성교육 책을 읽었죠. 지금은 아예 초등학교생부터 동영상으로 성을 배웁니다. 구술 커뮤니케이션의 시대에서 문자시대를 거쳐 이제 영상시대로 건너가고 있는 거죠. 기존에 문자시대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요.”

문화관광부 장관 이창동이 좋은 예다. 이전에는 글쓰는 이어령 씨가 지식인이자 문화예술인의 상징으로서 장관이 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이창동 장관은 소설가로 시작해 영화감독으로서 명성을 쌓고 장관이 된 것이다. 천씨는 또한 내년부터 영화라는 과목이 고등학교 커리큘럼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영화가 예술이자 교양이면서 삶의 중요한 소통형태로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문자문화가 바로 주변부로 물러나느냐 그건 아닐 것입니다. 가령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글을 읽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그건 이들의 글쓰기와 읽기를 인정하지 않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요즘 젊은이들은 게시판이나 이메일을 통해 그 전보다 더 다양하고 활발한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성 세대보다 더 참여적이고 소통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이미 월드컵과 2002년 대선에서 이러한 글쓰기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경험했다. 지금도 30대는 ‘오마이뉴스’에, 아줌마는 드라마 <대장금> 홈페이지에, 청소년들은 자신들만의 카페에 글을 쓴다. 조만간에 게시판 글쓰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서가 나올 것이라는 게 천씨의 생각이다. 이러한 게시판 글쓰기는 한국대중문화의 전체 성격과 결부되고 한국민주주의 문제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석사논문은 이와는 정반대의 논문이었습니다. 소설가 박태원을 가지고 썼는데 모더니스트로서 실험적인 작품이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를 연구하는 방법 역시 실험적이게 됩니다. 흥미로운 작업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래서 왜?’라는 의문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천씨와 같은 국문학자가 문학 이외의 주제를 가지고 박사논문을 쓰고 또 책으로 묶은 경우는 흔치 않다. 여태까지 박사논문은 으레히 인물론이나 작품론 아니면 사상적 흐름을 연구하는 전통을 견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 문학의 지위가 흔들리면서 학계에서도 젊은 연구자 중심으로 문학의 주변으로 시선이 옮겨가게 된다. 문학생산의 조건이 어땠는가, 문화적 환경은 어땠는가 하는 식으로 그 관심의 대상이 넓혀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연구는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들어 활발해졌고 최근 젊은 연구자들의 성과물이 나오고 있다. 최근 연애와 연애열기라는 개념을 중심에 두고 이 근대의 문화를 살핀 권보드래 씨의 <연애의 시대>(현실문화연구)와 같이 국문학과 출신의 책임데도 불구하고 대중문화나 페미니즘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는 게 천씨의 설명이다.

이는 다름 아닌,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인문학에 대한 반성이다. 또한 논문이라는 자기 완결성을 허물어뜨리고 새롭게 작업해 출간한 이번 단행본 역시 그와 같은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천씨의 작업 덕분에 잘 닦인 근대의 거울을 하나 얻은 셈이다. ☞